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4
응각 스님(수덕사 강주) / 아함경(10월 14일)



‘나’는 영원한가? 무상 알아야 해탈

〈아함경(阿含經)〉은 얼마전까지는 전통 강원의 커리큘럼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 다. 다만 열심히 공부하는 스님이나 불자들이 접했을 뿐이지요. 그것은 〈아함경〉이 ‘소승불교의 경전’이라는 잘못된 편칭 때문입니다.

‘아함’은 산스크리트어의 ‘āgama’를 음역한 것인데, 전해 내려온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아함경〉은 아함부에 속하는 4아함 또는 5아함의 총칭으로 불교의 중심사상인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오온, 삼법인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아함경〉은 〈장아함경〉 〈중아함경〉 〈잡아함경〉 〈중일아함경〉 등 북방의 한역장경(漢譯藏經)에 남아 있는 4아함과 남방의 〈장부〉 〈중부〉 〈상승부〉 〈중지부〉 〈소부〉 등 5부가 팔리어로 된 남전장경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함경〉은 남방과 북방에서 서로 다른 대접을 받습니다.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등 남방과 달리 중국으로 전해진 북방에서는 천태 지의대사에 의해 소승이라는 낙인이 찍혀 편칭됐습니다.

중국 천태 지의(538-597)대사는 부처님이 설하신 시간적·교의적 차이에 따라 오시팔교(五時八教: 화엄시, 녹원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열반시)로 경전을 분류했습니다. 〈아함경〉은 녹원시(鹿野時)에 속하는데, 부처님이 깨달은 직후 설한 화엄시(華嚴時)에 이어 12년간 설해졌습니다. 21일간 설해진 화엄시의 뜻을 알아듣는 중생이 적어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녹원시를 설하게 된 것이지요. 〈아함경〉이 소승불교라 하여 낮은 지위를 갖게 된 것도 낮은 경지의 교법이라는 지의대사의 분류 탓입니다.

중국을 통해 불교를 받아들인 우리나라에서도 지의대사의 교상판석(敎相判釋)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고려시대 체관 스님은 〈천태사교의(天台四敎儀)〉에서 “천태대사는 오시팔교로써 동쪽에 전해진 부처님 일대의 성교(聖敎)를 남김없이 판석(判釋)하였다”고 찬탄했지요.

오늘날 뜻있는 스님들과 상당수 불교학

자들이 부처님이 설한 원초적 모습을 하고 있는 경전으로서 아함경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함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장 원본에 가까운 ‘원조(元祖)적’ 가르침이며, 팔만사천 경전의 원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팔만사천 경전이라는 거대한 강물도 그 시작은 조그만 샘물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아함경〉은 바로 그 샘물과 같은 경전이라 할 수 있지요.

〈승만경〉 〈반야경〉 〈능엄경〉 등 대승경전은 〈아함경〉과 비교하면 장차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것으로 보입니다. 삶을 전혀 불리지 않은 〈아함경〉과 달리 대승경전은

“ 부처님 육성 담긴 팔만대장경의 원천 ‘삼보’ 자세히 밝혀 ”

살을 붙이고 곱게 화장을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대승경전이 시기적으로 뒤늦게 접질린데다 중국으로 전해진 경전에는 많은 교집과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함경〉에는 참 훌륭한 가르침이 많습 니다. 그 중에서도 불교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삼보(三寶)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삼보를 모르는 불자들은 아마도 없을 거 예요. 그러나 대부분이 불·법·승이라고만 알고 있을 뿐, 경전에서는 어떤 분을 부처님이라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어떤 이를 부처님과 같은 자리에 가겠다는 출가제자라 설명하고 있



응각 스님은 불교의 기본골격이라 할 수 있는 삼보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는지 아는 이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석가모니를 부처님이라고 하는가. 모든 것을 깨달은 사람, 다시 말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번뇌를 끊어 자유자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러한 경지에 오를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경전마다 그 표현과 해석이 다르게 나오는데, 〈아함경〉에서는 부처를 여래(阿耨多羅三藐三菩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모든 번뇌를 끊은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은 훌륭한 의왕(醫王)과 같아서, 생·로·병·사, 윤회고(惡趣會苦), 애별리고(愛別離苦), 구부득고(求不得苦), 오음성고(五陰盛苦) 등 세상의 여덟가지 고통(八苦), 즉 실존적인 고통의 원인을 알고 치료한다고 하였어요.

부처님은 〈잡아함경〉 ‘389경’에서 “비구들이여, 저 세간의 양의는 생·로·병·사·우·비·고·뇌의 원인을 진실 그대로 알아 치료할 줄 모른다. 그러나 여래 응 정등각인 나는 진실 그대로 알아 치료할 줄 알고 근원을 진실 그대로 알아서 치료한다”라고 불타관을 열어 주었습니다.

부처님이 〈아함경〉에 남긴 가르침은 불교의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기법과 사제, 팔정도, 삼법인 등 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이지요. 〈아함경〉에 담긴 사상은 부처님이 깨달

은 교의를 간단명료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므로 저것이 멸한다’는 말을 많이 들 어봤지요? 바로 연기법입니다.

〈아함경〉에서는 연기법을 세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과법과 인연화합법, 상의상관법이 그것인데, 인과법은 인간과 세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인연화합법은 사람이 생겨나고 변천하 고 또 발전하고 소멸되는 관계를 설명한 것 이지요. 또 상의상관법은 존재와 존재는 서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잡아함경〉 ‘299경’에서 비구가 “연기 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이 법은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던 안 나오 시던 세상에 항상 머물러 있다.”

이 연기법은 12가지 인연의 관계의 다른 표현인데, 괴로움과 해탈이 중생세계에 항상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12인 연을 바탕으로 해서 괴로움을 끊는 실천적 인 가르침이 사성제입니다.

〈중아함경〉 ‘분별성제경’에 이르기를, ‘사성제는 삼세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바른 행위를 닦게 하는 가르침’이라고 했 습니다. 사성제는 (고)·집(集)·멸(滅)·도(道)를 말합니다. 고성제는 괴로움의 범

“ 사성제·연기법 등 우주의 본질과 ‘참나’ 실현의 삶 분명히 제시 ”

위와 괴로움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는 것인데, 팔교가 이에 해당합니다. 집성제는 무엇인가. 괴로움의 원인이지요. 내 몸중이를 위주로 해서 내 마음이 주위의 모든 것을 취하려는 갈구와 집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성제는 목마르게 구하는 것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도성제는 고통 없애기 위해 필요한 실천적 인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 팔정도인데, 바른 견해(正見), 바른 사유(正思惟), 바른 말(正語), 바른 행위(正業), 바른 생활(正命), 바른 노력(正精進), 바른 기억(正念), 바른 선정(正定)을 말하는 것이지요. 팔정도를 잘 수행해 나가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율바

른 지혜를 지니게 됩니다. 삼법인은 무엇인가.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 열반적정(涅槃寂靜)이 지요.

〈중일아함경〉 ‘증상품’에 “모든 존재와 현상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요, 모든 존재와 현상은 괴로운 것이요, 모든 존재와 현상에는 실체가 없으니 내가 없고 번뇌를 다 떨 하면 열반이라는 진리를 깨달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존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항상 그대로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하기를 원하지요. 아무 병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나이가 70, 80 되신 분들도 이혼을 합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다’ 싶으면서도 부처님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제행이 무상이라는 것을 알면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텐 데 말이지요.

모든 현상은 변화하고 바뀌는데 내가 목 마르게 구하는 것이 안될 때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끼는 몸품이도 차츰 변해가서 죽고 말지요. 그러니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 다.

부처님은 삼법인에서 ‘제법무아’라고 했는데, 부파불교에서는 ‘나’라는 주체를 고집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다음 생까지 이어져 윤회한다고 보고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에서의 ‘나’입니다. 거짓된 나, 망아일 뿐이지요.

정신은 이 지적, 감정적, 의식적 작용을 합니다.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령의 고하, 지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지요. 시간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발문을 듣는 이 순간에는 정신은 온 통 부처님을 향해 있습니 다면, 입주문을 나서면 금방 달라집니다. 본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중생의 마음이라 그렇습니다.

감정적인 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뻐 다 성냈다가 슬퍼다가 즐거운 것이 과연 ‘진실한 나’입니까? 감정적으로 보는 것으로도 진실한 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올다 그르다 착하다 못했다 하는 의식적 작용이라고 예외는 아니지요. 우리가 옳고 착한 것만을 좇습니까? 잘못된 것을 알면서 도 좇게 되지요. 허물을 짓는 마음과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마음을 ‘진아’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진아’가 진실한 나라면 왜 순간순간 변해서 악해지는 걸까요. 그래서 악한 나쁜 착한 나쁜 ‘진아’가 아닌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는 수발타라라는 120세의 바라문이었습니다. 〈잡아함경〉 ‘979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발타라가 부처님에게 진정한 즐거우

중관(中觀) 가관(假觀) 공관(空觀) 3관(三觀)의 법- 2000년 대승불교, 최상의 법(法)을 공개한다.



한치선 지음
각 권 11,000원

“내가 보편이라고? 지운스님의 후생이라는 보편이 너였어?”
정호는 놀라움과 반가움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녀는 보편의 가늠인 어깨를 부둥켜안고 토닥이며 조그맣게 속삭였다.

“스님... 이렇게 또 뭘 봐야 할까요... 전차 말을 하지 그랬어...요... 내가 지운스님이었던 보편이라고...”
-소녀로 돌아온 옛 스승 중에서-

“연화사는 술이로구나... 세도 와서 지저귀고 승냥이도 와서 쉬어가고... 사람도 와서 열매를 따는구나. 천 가지 별베르리가 아늑도 허구나... 그렇게 티끌이 끊어지고 가는 꿈이... 나의 품보다 훨씬 더 넓은 것이로구나.”
-마음뭉침을 열어라 중에서-

그의 가슴 중심에는 그러한 비전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고, 무색계의 신명들이 이미 광대한 요충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생명을 사랑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하려는, 빛과 소금 같은 사람들이 서서히 개울을 들고 있다. 그들이 깊은 잠의 행성인 지구로 깨울을 것이다.
-금강삼매경의 인연 중에서-

그것은 구선에 주어졌던 엄청난 선물인 동시에 엄청난 숙제이기도 하였다. ‘이! 이것은 참으로 고귀한 수련법이로구나! 어찌해서 이런 법이 여태껏 인간세계에 묻힌 채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일까...’
-태백산용신과 오승련법 중에서-

중심...근본... 아무렇지 않다... 그 순간에는 비스도 사람도 시형도 도로도... 전지도 아무렇지 않을 뿐...그 어떤 것도 그를 흔들지는 것은 없었다.
-어둠의 끝을 본 눈 중에서-

그 죽음의 시간 언저리에서- 아들인 시우의 전신은... 지금의 아버지의 전신에게 벗기 어려운 불만을 가지게 된 것이다. ‘당신의 판단은 옳지 않았어요! 우린... 당신 때문에 죽게 될거야...’ 라고,
-지옥에서 만난 인연 중에서-



그가 주먹으로 눈물을 흘리며 산을 벗어날 때 공기를 타고 날아온 부처님의 목소리가 꽃향기처럼 그의 귓가를 스쳤다. “너는 나를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다. 나 역시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먼 훗날 나의 일을 도울 날을 위해 너는 지금 고통의 길을 떠나는 것이니라. 그날이 오면 아니루다여, 너는 나의 가슴 위에서 천만의 사람들에게 거대한 중을 울리리라.”
-이천오백년의 회한 중에서-

전생의 막대한 도반으로써... 이 생의 임무를 서약한 친구로서... 원효는 그에게 어느 세상의 아버지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설혹 역시 자신의 사명을 무의식 속에서 잊지 않고 있었다. 원효는 여찌 보면 설움을 자식 이라기보다는 친구로서 대하고 있었다. 그와의 인과를 알고 있었기에...
-파계승의 노래 중에서-

피란만장한 전생과 중생의 삶을 지나 그렇게 아귀도인인 태어난 것이다. 구선이 그 의식을 살펴보니 바라일은 날 때부터 2선경(禪定)의 경지였다. 아기는 놀람에도 4개월 동안 울지 않았다.
-아기돌인 바라밀 중에서-

권 오림은 처음으로 구선을 보는 순간-깜짝 놀라고 말았다. “언젠가 보였던 분이여! 먼... 옛날부터... 난 이 분을 알았었어...!” 그녀는 설법을 들으면서 더욱 확신할 수 있었다. ‘이 분이여! 이 분이아말로... 내 긴 수행여정의 종착역이다!’ 그것은 수십 년을 수행해오면서 얻어진, 거의 분동적인 직감이었다.
-수행의 미로 중에서-

스승이 다녔던 후에 처전은 서예의 목적이 생겼다. 아니, 인생의 존재목적이 생긴 것이다. 붓글씨로써-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내리라...
-마음길을 담은 노트 중에서-

